

최태원 “V4, 2차 전지·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 협력 확대”

〈대한상의·SK 회장〉

〈폴란드·체코·헝가리·슬로바키아 4개국 협의체〉

대한상의, 韓-V4 비즈니스 포럼

회장 취임 후 첫 해외 비즈니스 경제변영·사회가치 공존 강조 헝가리 외교통상부 장관 면담 韓기업 경제활동 관심·지원 당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폴란드·체코·헝가리·슬로바키아 등 동유럽 4개국 정부·경제계 인사들과 만나 2차 전지,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 협력 확대를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일 오후(현지시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KOTRA(코트라), 헝가리 수출청, 헝가리 투자청과 공동으로 ‘한-V4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취임 후 처음 주최하는 해외 비즈니스 행사이고, 동시에 한국과 ‘V4’ 간 최초로 열리는 경제인 행사다. ‘V4’란 1991년 헝가리 비셰그라드(Visegrad)에서 결성된 4개국(폴란드·체코·헝가리·슬로바키아) 협의체를 의미한다.

◆한국 기업 ‘탄소중립 파트너 될 것’

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V4 지역은 EU의 강력한 친환경 정책기조와 맞물려 지리적 장점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논



3일(현지시간) 헝가리 부다페스트 메리어트 호텔 그랜드부다페스트홀에서 열린 한-V4 비즈니스 포럼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의가 활발한 가운데, 이러한 흐름에 맞춰 양측 기업인들도 경제적 번영과 함께 사회적 가치가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힘을 보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V4 지역에서 한국기업의 그린 모빌리티 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인류의 공통의 과제인 기후변화 대응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비셰그라드 지역에서 생산된 배터리를 탑재한 친환경자동차들로 인한 탄소저감 효과는 2030년 기준 2260만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EU 전체 CO₂ 저감 목표(25.6억톤)의 약 1%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an) 헝가리 총리 등 양국 정상이 함께 참석해 기업인들을 격려했다.

한국 측에서는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정열 코트라 사장, 전영현 삼성SDI 대표, 김형기 셀트리온헬스케어 대표, 조현철 롯데알미늄 대표, 안은익 GC녹십자MS 대표, 등이 참석했다. V4 측에선 라슬로 퍼락 헝가리상의 회장, 마렉 클로츠코 폴란드상의 회장, 오스카르 빌라기 슬로바키아상의 회장 단 겸 Slovnaft(슬로바키아 정유사) CEO, 피테르 씨야르토 헝가리 외교통상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2차전지, 디지털, 바이오 등 신산업 및 인프라 협력 등 논의

“한국과 V4의 미래전략산업 협력”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한·V4 산업 및 투자협력 제고방안 ▲친환경차 사업 기회 모색 ▲그린·지속가능에너지 협력 방안 ▲디지털·바이오제약 협력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와 네트워킹 행사도 열렸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3일(현지시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라슬로 퍼락 헝가리상의 회장과 면담을 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정원정 기아 유럽총괄 전무는 ‘유럽 그린 모빌리티 전략’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기아의 전기차 등 친환경차 사업 현황과 전략을 설명하고, 모빌리티 분야 그린 에너지를 활용한 탄소저감 방안 등 EU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대응책을 제시했다.

이영직 삼성전자 헝가리 생산법인장 상무는 ‘30년간의 동행, 그리고 미래’를 발표하며 1989년 헝가리 진출 이래 현재까지 TV·모니터 공장 운영현황과 함께 유럽 동구권 시장 환경과 특성, 그리고 사회공헌활동(CSR)을 통한 국가 및 지역사회 기여방안 등을 설명했다. 또 한국-헝가리의 투자·진출·수출 등 금융협력, 한국-폴란드 배터리·자동차 등 주요 프로젝트 정보공유 및 기업 투자활동 지원 등 다양한 업무협약도 체결됐다.

최 회장은 이날 포럼 참석에 에어 피테르 씨야르토 헝가리 외교통상부 장관과 면담하고 우리 기업의 현지 경제활동을 위한 헝가리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어 라슬로 퍼락 헝가리상의 회장과 면담에서 1989년 한국-헝가리 양국 정부간 수교 이전부터 이어온 두 나라 상의 간 교류협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국제통상본부장은 “코로나 이후 국제통상질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글로벌 기업들의 유럽시장 진출이 확대하고 있는 시기에 이번 포럼의 중요성은 크다”며 “V4 지역에서 한국기업이 갖는 절대적 위상을 바탕으로 유럽의 시장진출 확대와 유럽 기후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초일류 배터리 강국 도약”... 국내 기업, 인재 확보 드라이브

현대차그룹

서울대와 배터리 공동연구센터 설립 LG에너지솔루션 고려대·연세대 배터리 관련 학과 신설 삼성SDI 포항공대 배터리 인재양성 과정 신설 SK이노베이션 친환경 사업 위한 글로벌 인재 영입

국내 완성차와 배터리 기업들이 차세대 배터리 시장 선점을 위해 인재 육성에 힘을 쏟는다.

최근 국내 기업들은 대학과 손잡고 배터리와 관련된 학과를 신설하는 등 배터리 전문 기술 인재의 체계적 역량 개발을 진행하는 한편 해외에서는 다양한 포럼을 개최하며 글로벌 인재 영입에 집중하고 있다.

◆명문대와 손잡고 인재 육성 가속화

4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지난 3일 서울대와 ‘배터리 공동연구센터’ 설립 및 중장기 공동연구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했다. 정이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비롯해 엘버트 비어만 사장, 박정국 사장, 김걸 사장, 신재원 사장 등 현대차그룹 최고위급 경영진이 총출동하며 이번 협력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부각됐다. 서울대 측에선 오세정 총장과 이현숙 연구처장, 이병호 공과대학장, 최장욱 화학생명공학부 교수 등이 참석했다.

현대차그룹과 서울대는 전기차 주행 거리를 늘리고 충전 시간을 줄인 차세대 배터리 선형기술 연구에 초점을 맞춘다. 구체적으로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전고체배터리(SSB), 리튬메탈배



3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관악캠퍼스 행정관에서 열린 ‘현대차그룹-서울대 배터리 공동연구센터’ 설립 및 중장기 공동연구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식에서 (왼쪽부터) 서울대 오세정 총장, 현대차그룹 정이선 회장이 대화하고 있다. /현대차그룹



LG에너지솔루션은 연세대에 ‘2차전지융합공학협동과정’을 신설했다. /뉴시스

터리(LMB), 배터리 공정 기술 등 4가지 분야에서 공동연구가 진행된다.

현대차그룹은 배터리 연구센터에 10년간 300억원 이상을 투자한다. 센터장에는 배터리 분야 세계적 석학 최장욱 교수가 위촉됐다. 정이선 회장은 “배터리의 기술 진보는 전동화 물결을 가속화할 것이고, 그 물결은 거스를 수 없는 큰 흐름이 될 것”이라면서 “공동연구센터가 현대차그룹에는 미래 모빌리티 사업 리더십을 굳건히 할 기반이 되고, 서울대에는 배터리 연구 생태계를 구축하

는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 삼성SDI 등 배터리 3사는 국내 주요 대학에 배터리 관련 학과를 신설하는 등 인재 육성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고려대에 ‘배터리-스마트팩토리 학과’를, 연세대에 ‘2차전지융합공학협동과정’을 각각 신설하고 배터리 인재 육성에 지원에 나섰다. SK온도 울산과학기술원(UNIST)에 ‘e-SKB’라는 배터리 교육 석사과정을 개설하고 인재 모집에 나섰다.

삼성SDI는 포항공대와 배터리 인재 양성 과정을 신설했다. 석·박사 과정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배터리 소재, 셀, 시스템과 관련한 교육 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등록금 전액과 개인 장학금이 지원되고 학위 취득 후 삼성SDI 입사가 보장된다. 선발하는 장학생 수는 2022학년도부터 2031년까지 10개년간 총 100명으로, 1년에 10명꼴이다.

◆친환경 사업 확대 위한 글로벌 인재 확보

“앞으로도 이런 변화는 가속화될 것이며, 관련 분야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급증하고 있다”라며 “한은도 경제 환경 변화에 맞춰 보다 다양하고 정도 높은 통계를 작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그 과정에서 여러 통계 전문가들의 도움이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한은 “데이터·통계 고도화 총력”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고도의 데이터 처리 기법이 일반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향후 이런 변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한국은행은 향후 여러 전문가들의 교류를 통해 정도 높은 통계를 위한 노력을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이승현 한은 부총재는 4일 한국통계학회와 한은이 공동으로 개최한 ‘데이터로 말한다: 과거에서 미래까지’ 주제로 열린 공동포럼에서 환영사를 통해 “지난 시간을 통계의 관점에서 돌아켜 보면, 과거에 ‘숫자’라는 정형적 형태로 대표되던 데이터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문서, 그림, 소리, 영상 등으로 비정형화하며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다”며 “분석방법도 딥러닝 등 고도의 데이터 처리 기법이 일반화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이런 변화는 가속화될 것이며, 관련 분야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급증하고 있다”라며 “한은도 경제 환경 변화에 맞춰 보다 다양하고 정도 높은 통계를 작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그 과정에서 여러 통계 전문가들의 도움이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한은은 국가통계의 품질 제고 등을 위해 다양한 행보를 지속해갈 방침이다. 국민계정 통계의 현실반영도 제고를 위해 기초자료 확충 및 추계방법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

기초자료 수집 및 점검, 통계 작성 및 공표 등 통계편제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도 제고한다.

정부, 학계, 유관기관 등 국민계정 통계 이용자들과의 소통과 협업도 강화한다. /백지연 기자 wdks0248@